

제 10회 PT & Critic 프로그램 녹취록

<Afterimage>

전병구

2017.10.21. 토 16:00~17:30

패널 : 강석호 작가, 안소연 비평가

김인선 :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PT & Critic”은 “프레젠테이션과 크리틱”이라는,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지는 작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에게는 첫 개인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도 듣고 참고로 할 건 참고로 하고, 또 선택적으로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일 활발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작가의 첫 개인전 진행을 하면서 그 성향에 맞는 이야기와 코멘트 해 주실 작가, 비평가, 기획자 등 패널을 초대해요.

PT & Critic 에 선정된 작가는 전병구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계시는 두 분 패널은 강석호 작가님과 안소연 비평가 선생님이십니다. 전병구 작가님이 먼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예전 작업부터 쪽 설명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작업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이서 자유롭게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전병구 : 안녕하세요. 전병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업 설명을 크게 두 분류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로 보여드릴 작업은 2012년, 13년에 했던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작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2014년 이전 이후로 제 안에서는 분명하게 나뉘는 기점도 있었고, 가장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2012년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2012년 작업은 <팩토럼>의 작업의 시리즈인데 제가 이 시기의 작업들은 그림 하나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6개면 6개, 8개면 8개의 시리즈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때의 작업들은 순서도 그렇고 그리기 전에 영화처럼 콘티를 짰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 시기예요. 그 시기의 작업 중 하나가 ‘팩토럼’이라는 작업인데, ‘팩토럼’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잡부, 잡역부 이런 뜻인데요. 찰스 부코스키(Charles Bukowski)라는 미국 소설가의 작품 중에 <팩토럼>이 있는데, 자전적인 자신의 이야기라고 해요. 글을 쓰는 자신이 이런 저런 소외된 노동, 비정규적인 일들을 하고 일주일 만에 잘리고...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소설인데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저의 상황과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학부를 졸업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를 다 보냈었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들어가 있는 작업이고요, 2012년도에 6개월 정도 일용직의 신분으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안에서 텔레비전 같은 것을 분해도 하고, 포장도 하고 옮기기도 하면서 그런 노동들을 제 또

래의 친구들과 노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린 작업들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목을 보시면 <팩토템>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창고 같은 걸 그리고, 삼성전자 안에서의 풍경들, 건물 안에서 바깥 건물을 보는 풍경들, 겨울이라서 가지고 옷도 두껍게 입고 있죠. 이야기하며 쉬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 20대 중후반에 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때의 사이즈는 30호도 있고 20호, 50호 등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었고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강석호 선생님의 전시를 그린 것입니다. 제가 주 5일을 그린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서울로 현대미술 전시를 보러 갤러리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노동하는 사람인데 왜 주말마다 이런 데를 유령처럼 갤러리를 돌아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친구와 갤러리에 놀러갔던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토크 때 강석호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신기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그린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시리즈는 <1996년>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제작년도는 2013년이에요. 제목도 숫자라서 조금 헛갈려 하시는데 96년도에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제목이 <1996년>이고, 당시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그린 작업들이에요. 96년도에 저희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2013년 이 당시에도 뭔가 집안 곳곳에 아니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작업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집 앞에 부터 시작을 하고요. 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쓰레기라던지, 오래된 집의 옛날식 몰딩 이런 것들도 그리고 주방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건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스토리가 전달되기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시기로 넘어가서, 20대 내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0대가 돼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다가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작업을 앞에 보였던 작업들은 물감을 그때도 얇게 그리긴 했지만, 물감을 말리면서 그 위에 물감을 쌓으면서 묘사를 계속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많이 걸리면 한 달 짧으면 1~2주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5년 6년 혼자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지겹고 재미가 없고 그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실은 많은걸 포기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는 동안 좀 재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요소를 바꾸면서 재밌게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묘사의 문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묘사를 쌓고 쌓아서 최대한 입체감을 내고 사물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진을 재현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 물감을 쌓아가는 방식, 그 지겨운 방식이 싫어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묘사에 의존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종이에 캔버스 종이를 사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보고 4가지 버전으로 그려봤거든요. 색도 좀 바꿔놓고, 기름의 양도 좀 바꿔보면서 3-4개 그려보고, 테스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내가 약간 원하는 정도의 농도, 색,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방학 때 대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던 게 묘사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제가 묘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물리적으로 한계를 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감이 아예 마르기 전에 축축이 젖은 상태에서 그림을 끝내보자. 그러면 내가 위에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그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한을 두고 그렸고 첫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하루 안에 그냥 한 번에 재밌게 그렸던 작업이었어요. 이때부터는 묘사, 재현의 문제에서 하드웨어적인 제한을 두고, 바꾸게 된 기점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병구야. 너의 그림은 소묘위에 색을 올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 그게 페인터로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앞에선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겹쳤고 마침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갑자기 확 달라지는, 기존에는 내가 콘티를 짜고 사진들을 내가 찍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뭔가 내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그런 내 스토리,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회화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태도를 이제는 졸업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파편적인 소재들, 파편적인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앞에 작업들은 대부분 연작이었다면, 이때 작업들은 하나하나 제목이 있고 하나하나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회화로써 도구로써 연출하는 어떤 그런 식의 방식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형식, 물감의 농도라던지 붓 자국 이라던지 색 등의 회화적인 형식 장치들이 훨씬 중요해지면서 내용이나 그림의 소재는 영화에서 가져오고 친구 인스타그램에서도 가져오고 제가 찍은 스냅 사진에서도 가져오고 이런 저런 데에서 많이 소재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점도 앞의 작업들 하고는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처럼 영화를 보고 그린 작업들은 아예 제목도 영화에 제목을 띄고 있고요.

이 작업은 제가 지하철타고 다니면서 봤던 풍경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잠들어 있는 풍경으로 잘생긴 동남아 쪽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그림을 노동자가 보면 곤란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작업이에요. 제가 인물화가 별로 없는데, 많지 않은 인물화중 하나예요. 이런 건 ‘그것이 알고 싶다’보면서 그린 장면이고, 제목은 <good bye>라고 지었어요. 기법 연습은 남이 찍은 사진을 보고 많이 연습했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그림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다보다는 주변 일상에서 제가 보는 것들, 핸드폰에서 보는 것들,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것들, 아니면 실제로 지하철에서 보는 것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의 작업실이 양주에 있었는데, 양주 작업실에서 문을 열면 이 주차장이 보이는데, 이 검은색 아우디가 며칠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차는 왜 계속 서있을까? 그리고 뭔가 저 차를 보면서 웬지 저 안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이 울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올라서 한번 그려봤고 그래서 제목도 <혼자만의 것>이에요. 뭐 이런 시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있는 형들에게 들어보니까 가장이 되고 이러면 혼자 울고 싶어도 울 데가 자기 차안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까치를 그린 건데 이게 한 가지 에피소드라면, 한번 압구정에 있는 상업 갤러리에서 전

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셨대요. 다 이 그림이 팔렸냐고. 까치 사무실이나 집에 걸어두면 풍수지리적으로 행운의 상징인가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까치만 그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까마귀만 그리고 있어요. 낮에 있는 생경한 장면이었는데, 작업실 주변이 외지다 보니까, 큰 운동장 같은 데 흰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렸어요. 이런 것은 야구 중계하는 것 보다가 왠지 모르게 캡처해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작업은, 전시장에 많이 있는 작업이에요. 이번 전시가 2016, 2017년 작업들이 섞여 있어요. 올해 한 작업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올라왔고, 좀 더 레이어가 적어졌어요. 올해는 물감을 캔버스에 칠했을 때, 캔버스 표면이 비치지 않으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이 1년 사이에 변하게 되고, 색도 작년에 그린 것보다 채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고. 내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이번 전시에 걸려있구요. 어떤 것은 차이가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채도가 높아지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1996년 시리즈를 처음으로 신한갤러리에서 보여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5년 전 작업을 처음으로 전시를 통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시 제목이 스펙터이터로, 전시 관찰자를 상징을 하고 전시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관찰자를 회화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2014년을 기점으로 가장 최신의 그림과 변하기 이전의 최신 작업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어요. 1996이 5년 만에 전시장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었고, 작업의 순서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었어요.

**김인선** : 잘 들었습니다. 앉아계신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소연** : 네 그 저희 지난번에 1-2주 전에 사전미팅을 하면서, 강석호 선생님도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전병구 작가의 작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평가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해 고민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전병구 작가 전시를 우연히 많이 봐왔고, 눈여겨 봤었어요. 전시와 관련된 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으로, 작업을 대하는 태도로 남아있나 봤을 때, 이중적인 태도가 교차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작업은 점점 더 형상이 있지만, 형상의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이 됐고, 간간히 피티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비누곽, 알약 세 개 반이라던지, <햇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2009년 작업에서는 미물과도 같은 사소한 물건을 탐구하는 태도들이, 쉽게 말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묘사 중심이고 서사 중심이고 이야기 전달하기 위한 입장 속에서 이런 작업으로 변화하는 것이, 대상과 아우디 자동차를 보는 작가의 시선처럼, 대상과 내가 일상적이고 별 것 아닌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추상적인 관계의 존재감. 저 대상과 거리를 유지하는 나의 존재감, 그런 교감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작업에서 기법적 형식적인 것 말고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 태도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느끼는 경험들이 작가가 느끼면서 회화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 작업 같은 경우에도 세 개의 기둥과 세 개의 원이 있는데.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공허한 물감 덩어리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대상의 붓처리, 물감처리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지, 저도 저걸볼 때 파란색으로 인식하게 돼요, 색의 존재감이 강하고, 주변을 흰색으로 둘러싸면서 덩어리를 구축해나가는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작가의 제스처와 대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과정이, 철학적이고 존재에 대해 접근하는 맥락이 느껴졌어요. 작가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변화가 많다고는 했지만, 대상, 장면, 오브제를 봤을 때 느끼는 감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이야기, 상상, 과거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그걸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프로세스는 같고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는 변화가 없다는 것. 예전에는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지금은 캔버스라는 평면에 대상을 옮길 때 형식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긴 해요.

**김인선** : 대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객관화된 시선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작가의 개인사적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 보고 계신 풍경들은 주변에서 파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어떤 것, 인스타그램, 실제로 본 것 등 작가의 아주 몰입되는 감정은 빠져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형식적인 부분에서 작가가 다루는 태도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병구** :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림으로 옮길 때는 최대한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저런 감정을 느꼈더라도, 기록을 할 때는 건조하게 다 걷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예전 작업 역시도 너무 내밀한 이야기들이어서 그걸 그대로 캔버스에 담으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채도도 살짝 빼고, 이야기도 있을 듯 말듯하게 연출하면서 최대한 거리를 둔 게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지금작업이 이전보다는 좀 더 멀어졌지만, 그림을 그리는 대상, 구도, 사물의 크기 자체가 제가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있더라구요. 최근에 그런 걸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소연** : 제가 앞서 했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대상에 대해 객관적 보편적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가진 본질까진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것들만을 회화 안에 담아내려는 게 아닌가 해서. 왼쪽 화면을 보면, 초록 사각형, 빨간 면들을 보면서 야구장인지,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추상적인 면이 펼쳐져 있는데,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객관적 풍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원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상에 대한 본질적 사유, 그런 시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질문도 그런 맥락이고. 까마귀 묘사를 잘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검정, 황토색 면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대상을 건조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시선을 붙잡는 것들이 작가만이 대상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탐구가 있지 않아 생각이 들어요.

**강석호** : 안소연 선생님 질문에 손가락을 얹자면, 그림을 이전과 이후 작업이라고 구분짓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구분했으니까. 이전 작업에서 버린 것과 이후 작업에서 얻는 것이 있나요?

**전병구** : 이전 그림에서는 장면을 잘 묘사하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그림을 도구로서 대했던 것 같아요. 뭘 그럴지 결정한 순간, 저는 신경쓸 게 없었어요 그냥 그리면 되니까요. 그 방식을

버리고나서 얻은 것은, 그럴 때의 자유감이요.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아도 되고요. 힘을 좀 빼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존 작업의 이어나가는 방식을 흥미로워하시거나 다시 할 생각없냐 물어보시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후에 다시 그런 방식으로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강석호** :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친구, 후배, 중에 “이 그림 나도 그리겠다”라는 소리 들 어본 적 있어요?

**전병구** : 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은 안나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 이런 걸 그리 냐고 하세요. 왜 그리냐고. 나도 그리겠다는 말은..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김인선** : 최근에 오면서 그림이 예전보다 자유롭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잖아요. 일정 이상 크기의 캔버스에는 작업을 안 한다던지, 또 마르기전에 완성하고 더 이상 손을 안 댄다던지.

**전병구** : 스스로 제어가 안돼서요. 자꾸 더 그리게 되고, 끝이 없게 되고, 그게 맞으면 좋은 데,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한 그림을 한 달 내내 보면서 좀 더 고치고 또 그리고 그러는 것이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규칙을 정했어요. 한 번에 그리고, 기름이 마 르면 손대지 않는다고 정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극명한 기준은 “20호 이상 절대 안그려” 이거는 아닌데, 하루 이틀 안에 끝내려다보니까 20호 이상이 넘어가다보면 그리 기가 힘들기도 했고요. 더 크게 그리고 싶으면 부분적으로 완성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작은 그림을 주로 그리게 되는 것은 제가 작업을 그림을 보는 방식, 큰 그림 볼 때와 작은 그림 볼 때의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큰 그림은 압도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경험되는 것이 있다면, 작은 그림은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서 안으로 빠져서 보지 않는 이상 경험하기 힘든 구 석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만화책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 저한테는 가까이에서 보는 방식이 익숙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제 그림 역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정리된 생각이요, 그 전에는 기법적인 문제만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해결하려 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그림을 보는 방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김인선** : 눈높이를 최대한 평균높이에 맞춰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높다고 말했고, 작 가는 낮다고 말하면서 옥신각신했었는데요, 작가는 관람객이 눈을 들이밀고 보는 것이 중요한 가보다 생각했어요. 높이가 맞지 않을 때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등의 불편함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보면, 거의 일정한 높이로 한 줄로 하나하나 걸려 있어요. 작은 작품은 자유롭게 구성하다거나 한 덩어리로 건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유난히 이번 전시에서는 하나하나 일렬로 걸고 싶다고 했고, 간격이나 높이 등을 굉장히 세밀하게 신 경을 써서 설치를 한 작업이에요. 페인팅 설치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이렇게 힘든 회화 전시 작업을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다시 고치고, 간격을 조 절하고요.

**전병구** : 디스플레이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눈을 감는데, 눈을 감는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이쪽 벽이 떠올라서 잠이 안와서 그 다음날 와서 간격을 다시 고쳤어요.

**김인선** : 페인팅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연출, 관객의 경험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페인팅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철학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소연** : 강석호 선생님이 얘기해주셔서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림을 안 그려봤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었는데, 레이어를 쌓아올리지 않고 면을 하나하나 채우는 방식이 눈에 띈 것 같아요. 가운데 주제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계속 물감 칠을 하고, 그런 것이 일관되게 보이거든요. 야구장에서도 그걸 둘러싸고 맞춰가는 과정들이, 보는 사람을 의식을 하는데, 다큐멘터리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야말로 추상미술의 조형성처럼 이것들이 어떻게 인지작용 조형작용을 해서 보여지면 좋겠다고 하는 시각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던 느낌이 들었어요. 형태가 많은 그림을 볼 때 드로잉 선과 그 위에 물감이 얹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형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신경 썼던 예전의 작가의 경우는 윤곽선이나 면의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드로잉 같은 연필선의 간결한 선들, 한 번에 밑그림 그리듯이 스케치한 것 위에 물감이 투명하게 올라가 있는데 딱 매치되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에게는 투명하기 때문에 더 지각이 되고 골똘히 보니까 거슬리게 되고 그래요. 형식적, 기법적인 것, 형태, 면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는데, 드로잉의 선들이라든지, 채색 방식이라든지, 보는 사람들의 관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듣고 싶어요.

**전병구** : 요즘에는 대상을 선택하고 표면에 옮길 때,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자르고 키우고 하는 선택부터, 캔버스에 옮길 때의 선택들, 입체감을 줄 수도 있고, 레이어를 여러 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연필 선을 안보이게 할 수도 있는 등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올해는 특히 레이어가 얇아지면서 대상을 잘 그려야겠다는 보다는 이것을 평면화시켜서, 면, 색, 질감 정도로만 구분을 해서 면을 만들고, 제 방식대로 칠해보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붓이 닿지 않는 틈을, 채울 것이나 말 것이나 하는 선택의 결과들로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아주 철학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세세한 것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대상을 캔버스 위에 붓자국으로 질감으로 회화적 장치로 옮기는 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1** : 작가분이 말씀하신대로 그림이 크지 않기도 하고, 기름이 마르기 전에 끝내는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작업량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시에는 많이 보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실거구요. 전시되는 작업 중에서도 작가 스스로 느끼기에 더 마음에 든다, 이걸 아쉽다 이런 느낌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스스로에게는 뭐가 중요한지 궁금해요.

**김인선** : 저도 궁금해요. 재작년 겨울에 이 전시가 정해지고 초대를 했어요. 전시를 하게 되어서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전시 이전에 세 번의 큰 그룹전에 참여하면서 전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전으로 섭외를 했는데, 제 욕심에는 짜잔하고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이미 유명해져 버려서 어떤 작업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몇몇 작품은 전시에서 이미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이전 그룹전에서도 제가 보고 좋아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전이라고 하는 목표 안에서 또 한 번 소화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이 작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특별히 개수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병구 :** 1년에 20-30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려야할지 생각을 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주일을 그린다고 하면 4일 정도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고, 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구요. 많으면 1년에 30점정도요. 그려 놓고 제 마음에 흡족하고 아니고는, 글썩요. 잘 그려지면 전시를 하고 싶고, 아니면 숨기고 싶고 그런거라서요. 뭔가 말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시를 3개를 그리면 하나 정도만 발표해요. 2점 정도는 혼자 본다거나, 작업실에 놔둔다거나요.. 뜯어서 버리기도 해요. 지금까지 작업은 250점 정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점 정도구요. 좋은 경우에 좋은 분께 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뜯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명확한 기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안들고 있고, 남이 보았을 때 이걸 괜찮은 데 왜 안겨냐고 이야기를 해도 제 마음에 성이 차지 않으면 절대 발표를 하지 않아요. 명확한 이유는 없고. 발표하지 않은 작업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보여드리니까 모르시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작업들의 경우에는 두텁게 발리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김인선 :** 전시 이전에 작업실에 갔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작업이 있었는데, 전시에 출품하지 않더라구요. 그때도 제가 이거 괜찮은데요, 했는데, 본인은 탐탁지 않아하더라구요. 칭찬 세례를 해서 낼 줄 알았는데, 결국 안내더라구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학부 졸업하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공백이 길면 미술을 더 이상 안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럴 법도 한데, 5년 내내 전시를 한 번도 안하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대요. 5년 동안 혼자 꾸준히 작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텐데, 조급해 하지 않고 매우 끈기 있게 조금씩 진행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본인이 작업을 고르는 기준이 스스로 까다롭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신의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병구 :** 제가 5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학부때 교수님이 그림을 “100점을 그리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3-4년 지나고 100점 그렸는데 작가가 안됐어요. 그러고 교수님을 다시 만나서 “100점 그렸는데, 왜 안되냐”고 물으니, “150점 정도는 그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학원 가서 30살이 넘어서 150점을 드디어 채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150점 했는데 안돼요.” 하니깐 “원래 교수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하셔서 엄청 배신감을 느꼈었죠. 그게 도움이 됐어요. 목표를 막연하게 뒀으면 못했을텐데, 단순하게 100개 채우면 된단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가졌었는데, 오래 걸린거죠.

김인선 : 요즘 젊은 작가들보면 데뷔를 빨리 하고 싶고, 전시를 계속 많이 해야한다는 어떤 압박 같은 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태도와 비교해 볼 때에는 다른 면모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강석호 : 내가 말한 것 같은 느낌이네. 100개 그리면 작가 된다고.. 학생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말하죠. 100개를 다양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색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100개.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100개. 무조건 100개를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 오랜만에 이런 것을 해서, 이 프로그램 하다가 하도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갑자기 인선씨가 하라 해서 했는데 오늘 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걸 왜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별로 할 말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말을 하면 잔소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가 이게 아마 나도 작업을 하고, 전병구 작가도 작업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가 선배랍시고 좀 더 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서 많이 조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생각해봤죠. 내가 만약 이런 걸 했다면 내가 도움을 받았을까? 내가 했을 때 도움 못 받을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에는 내 주장이 더 강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밤새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으니까 얘기는 하긴 해야 하죠.

농담 삼아서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얘기를 한 것은 저런 그림이 쉬워서라기보다 왜 예전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없애고 저런 부분을 택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런 얘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다 알다시피, 원래 조소과를 졸업했잖아요. 내 나름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오래 그리다보니까 내가 쓰던 근육이 퇴화가 되어나 봐요. 얼마 전에 봉사를 해서 힘세다고 벽돌도 나르고 했는데, 요새 병원 가서 침 맞고 다니거든요, 예전 생각하면서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그림을 그리니까, 생각과 몸이 변형되긴 했는데, 이런 빈약한 상태로 살아야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새롭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서 예전처럼 살아야하나 생각했어요. 예전 그림과 다르게 변했는데, 예전처럼 대상에 이야기를 부여해서 그리는 게 맞는 선택인지, 이 선택에서 발전시켜서 뭔가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그게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그림에 비해서 예전 그림이 확실히 대상을 사진을 찍었을 때, 서사적 구조가 강하죠. 지금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 졌어요. 대상이 인물도 많이 빠지고, 각 대상의 명암이 빠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형요소 중에 명암은 이야기를 구축하는 데 좋은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만화 보면 명암 없어도 이야기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여러 컷트가 연결되니까요. 그림에서는 명암이 빠졌을 때 힘이 빠진 듯한 느낌, 몸에 근육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이걸 갖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것은 대상이 이야기에서 색감과 색채와 면, 붓질로 대상이 바뀐 것이 보이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냥 보고 즐겨라 하는 건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조형성에 대해서 나만의 특별한 조형 요소나 효과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다 설명했지만요.

전병구 작가 토크를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까먹을까봐 적었는데,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거보다 이미 다 아는 작가지만, 그 작업을 보면 어떨까 해서 적어놨어요. 에드워드 호퍼 <빈방의 빛> 하나 하고,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작업이라고 하는 데요. 이것 하

고,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래요. 또 하나는 영화인데, 아키 카우리스메키(Aki Kaurismäki)라는 작품이 있는데 ‘레닌그라드 카우보이’같은 영화로 유명하죠. 영화 중에 ‘과거가 없는 남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키 카우리스메키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주연배우가 말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배경이 묘하다는 것. 그 효과를 ‘타블로 비방’이라고 하는데, 회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우를 화장하고, 무대에 색을 입혀, 회화 장면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화 한 컷을 인용해서 그리거나 했어요. 실제로 그런 작가가 있죠.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의 마지막 작업으로 알려진 <빈방의 빛>을 보면 전병구와는 다르긴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방 안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빛의 색깔과 명암 대비효과가 굉장히 말로 표현 하는 이야기를 내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나면, 아우디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 색깔과 구도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게 놀라워서 전병구 작가에게 추천하고 싶었고, 아키 카우리스메키의 영화 한 장면, 그 사람 영화의 특징은 무언의 타블로, 침묵의 타블로라고 말하더라구요. 타블로는 풍경이라고 하니까, 아무런 이미지도 이야기도 없는 그냥 풍경.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색깔과 인물 구도와 이런 것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병구 작가의 작업이, 화면 구성이나 색깔에 대한 플레이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오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외의 작업이 조형적으로 잘 읽혀서 많이 퍼지면 그 안에서 세분화되어서 다양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구요. 지금은 이런 류의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병구 작가가 독보적일 수도 있는 표현방식인데, 다른 작가와 서로 교차되면 전병구, 다른 작가에게도 좋지 않을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작가 입을 통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나나 누가 얘기할 수는 없고, 주변 친구들이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말 많이 했죠? (웃음)

**안소연 :** 저는 전병구 작가가 이야기가 없고, 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이야기가 제거됐을 때, 영화에서 유독 한 장면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 배경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조그만 덩어리를 가운데 놓고 모든 서사로부터 끊어진 장면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고도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공허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물감과 면적 정도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성이 있지 아닐까, 까마귀의 검정색이 저 면적이 어떤 존재로 사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는 작가의 존재, 보는 사람의 상상이라기보다는 사유의 지점들.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허한 말일지 모르겠으나, 물감과 형상이 서사로부터 끊어져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지점들이 좀 힌트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혹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시 글을 쓰면서.

**관객 :** 저는 <파란 굴뚝>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 그림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붓질인데, 리듬감이 느껴져서 혹시 저 그림에 대해서 작가의 코멘트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병구 :** 네. 저 그림과 <진달래>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푸른 산>, <파란 굴뚝> 그림을 그릴 때에 조형성을 구축하는 방법들, 물감의 두께, 속도, 색, 산을 어떻게 면으로 구성해서 그릴 수 있을지 여지가 많은 사진이었고, 사진 자체가 잘 안 나온 뿌연 사진인데, 면을 쪼개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하는 조형요소가 우연히 잘 나와서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느끼고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저 그림을 그릴 때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지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추구하는 조형요소가 잘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요. 반대로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림인데. 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그림이 제일 좋은지 물어보는데요, 페인터들은 대체로 진달래 그림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달래 그림은 여러번 실패했어요. 두 번은 발표할 수 없었고, 하나가 어렵게 그린 그림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단 두꺼워지긴 했는데, 제가 애초에 진달래를 보고 느꼈던 인상은 잘 나와서 좋아하거든요. 굴뚝은 제가 원하는 조형요소가 잘 나왔고, 진달래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맘에 듭니다.

**관객 :** 크기, 그리는 방식, 묘사 줄이는 방식 등 계속 변해왔는데,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추상적인 면이라던가, 다른 표현방식을 연구하신다던가 어떻게 변해나갈지 본인이 추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병구 :** 추상화에 관심은 많지만 갑자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상화의 요소들을 제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개의 원과 세 개의 기둥이라는 사실은 오브제가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추상적으로 구성해서 그려본 작업이었고요. 책장 위에 있는 그림 역시도 시작은 형상이 있었지만, 그걸 가져와서 패턴으로 만들면서 추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작업실에 더 있기도 하구요. 그런 식의 시도를 해보고는 있어요. 무엇을 보고 캔버스에 옮길 때 면으로 색으로 옮길 거면 애초에 형상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게 쌓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강석호 선생님 이전 질문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해보자면, 제가 요즘 그리고 있는 2017년 그림들, 조형적 요소를 추구하고 발전시켜서 전병구라는 조형성, 회화적 장치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추상적 요소를 더 가져오고, 따로 진행해보고 싶기도 하구요. 대학원 친구가 만든 장치인데, 그것에서 원과 기둥만 빼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놓고 사진을 찍고, 파란 세 개의 원을 다시 그리면서 재구성을 해서 배치를 살짝 다시 해서 잘라서 그렸고,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했으면 했고, 기념비처럼 보이기도 원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관객 :**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그림, 사람들이 나타나는 초기 작업은 일용직을 할 때나 그럴때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지쳐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얼굴을 가리고 있고, 느껴지는 느낌은 멜랑콜리한 느낌, 소외된 느낌, 외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식의 감정은 배제할 생각인지. 사이즈에도 반영이 되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다들 크게 그리냐 했는데, 또 작으니까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구요. 작가가 세상을 보는 태도가 색감이나 사이즈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병구 특유의 개성은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전병구 :** 저란 사람의 정서가 빠질 수는 없어서 계속 될 것 같고, 제 시선이 자주 가고, 마음에 남는 것은 그리게 될 것 같아요. “너 외롭니?”하는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좀 부끄러워요.

**김인선 :** 저의 개인적인 그림에 대한 느낌은, 화면을 열심히 관찰해 본 결과, 작품을 거는 태도를 분석해본 결과,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가운데 있고, 그걸 둘러싸고 뭔가를 그리는 그런 것을 보는데, 사이즈가 작은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나가다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저 그라운

드의 잔디밭 가운데의 마운트를 중심으로 장면을 찍겠구나, 저 진달래가 혼자 피어있는 걸 보면 내 핸드폰의 사진에 중앙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리는 냥 하면서 현대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소연** : 강석호 선생님한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게 더 회화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매우 이율배반적인, 대상은 거리를 두고, 나는 이젤을 펴고 빠르게 그리는 느낌들, 그런 전통적인 근대 회화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과정은, 그것을 충분히 사유하고 그림으로 옮기는 전 과정이 존재하고, 순간의 즉각적 인상이 아니라, 전시 제목처럼, '잔상'이라고 하는 대상의 관찰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업의 규모는 이젤 페인팅보다 더 작기는 한데, 바로 위에 다 두고 거리에 있는 것을 옮겨오는 과정이 들어갔다 나왔다 추상이고 구상이고 복잡미묘한 것들에 대한 오랜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면서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 해요. 작업의 크기라던지, 빠르게 그리는 것은 되게 전통적인 인상주의 그림의 방법론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아주 개별적이고 파고드는 집요함, 오랜 시간의 접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측면이 계속 공존하는 지점을 봤어요. 저는 그런 작품이 갖는 상상적인 것이나 그런것보다는 작가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이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작가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하고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같을 수 있는지. 즉각적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더 얘기해봐야겠죠.

**김인선** : 2014년에 전병구 작업을 봤을 때, 붓자국이 재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끊으면서 이어지는 붓자국이요. 그런 붓자국이 사실은 초반에는 묘사하느라고 없었어요. 그런 효과들이 일부러 하다보니 나온 건지, 본인만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전병구** : 너무 평범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 붓자국이 그렇게 특이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요.

**강석호** : 심한 편은 아니고, 아크릴 붓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부드럽고, 유화 붓으로 했으면 더 강하게 나왔겠죠. 물감을 바를 때, 그 결과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붓 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붓을 지나간 자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겠지만, 전병구 작가는 붓을 한 다음에 보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전병구 작가가 하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전시가 아니라 만약 추상화가가 왔는데, 이우환이 와서 발표하는데 다 점이 돼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지 궁금했는데, 이거는 진달래, 푸른 산, 파란 굴뚝하면서 소재를 바꿔가며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저 패턴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는 명칭을 얘기안하고, "책장 위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말하는 것에 스며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상이 있으면 명료한 지시어가 그림에서 나오는데, 아니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구나. 붓질이나 색채나 색면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지금 전병구 작가에 말에 의하면 뭔가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대상을 조형 요소로 두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상을 본인이 찍어온 이미지에 두고 있구나 하는 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림에서는 회화적 효과가 드러나는구나 했어요.

**김인선** :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한 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작가님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